

그림2. 처리횟수별 친환경농자재의 버벌구 밀도변화

표1. 벼 포장에서 친환경농자재 방제횟수별 버벌구 방제효과 비교

성분명	농도(배수)	20일차 방제효과(%)	
		1회 살포	2회 살포
님제제	1,000	16.7	98.5
님추출물	2,000	77.3	100.0
고삼 + 계피추출물	1,000	71.2	95.5
무처리	-	-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8월호〉

영양만점 어린잎채소의 친환경 안정생산

김원배 채소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샐러드나 생식, 요리장식 소재로 이용하는 어린잎채소(베이비채소)가 웰빙시대의 건강 식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써 재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 어린잎채소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린잎채소의 이용과 소비

베이비채소라고도 하는 어린잎채소는 일반적으로 종자가 싹을 틔워 본잎이 2~3매 전개되고, 잎 길이가 10cm 미만으로 자란 상태를 말하며, 본잎이 전개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의 새싹채소와 전혀 다르다.

어린잎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성분이 일반채소보다 최고 4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항암 등 건강을 증진하는 기능성 물질 함량이 많아서 이른바 웰빙식품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불과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질감이 부드럽고 맛

이 좋으며 바로 먹기 좋은 신선상태로 수확 포장되기 때문에 특히 편리성을 추구하는 신세대 취향과도 잘 맞는다.

호텔이나 식당, 가정 등에서 샐러드나 비빔밥, 각종 요리 장식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웬만한 마트나 백화점 코너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잎채소는 유럽이나 일본,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용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된 만큼 보급역사가 짧다.

어린잎채소의 재배와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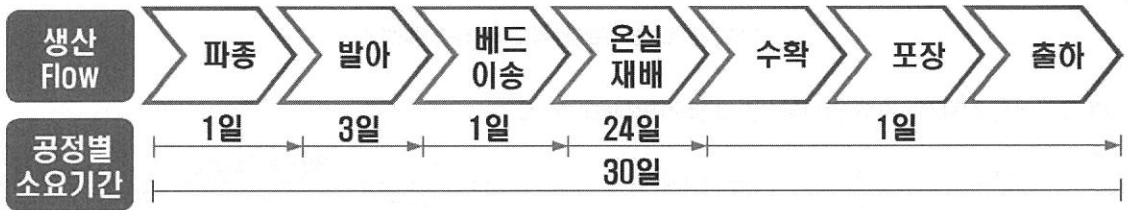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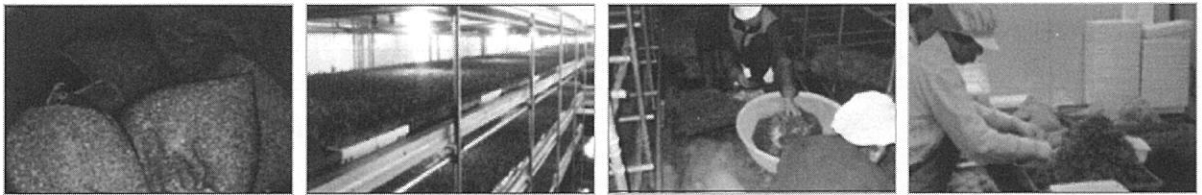


그림. 새싹·어린잎채소 생산공정



▲ 종자침지

▲ 재배

▲ 세척/수확

▲ 포장

현재 어린잎채소의 재배면적은 통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지만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3% 이내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어린잎채소(새싹채소 포함)의 재배면적은 112ha로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연평균 65%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어린잎채소(새싹채소 포함)의 시장규모는 약 204억원이며 2020년에는 1,082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새싹협회의 조사결과 2012년 어린잎채소의 1일 생산량은 4,000kg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비회원농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품목으로 다채(비타민)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청경채 20%, 치커리 10%, 비트 7%, 로메인 5% 순으로 재배하고 있다.

산지별 출하량을 보면 서울근교의 경기지역에서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호남지역에서 20%, 영남지역에서 10% 출하되고 있다. 계절별로는 봄 48%, 여름 20%, 가을 18%, 겨울 14%로 주로 봄철에 집중적으로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어린잎채소는 주로 토양재배로 생산했으나 최근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은 시설 내 배드재배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배드재배 시에는 모판상자를 이용한 평면재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입체재배가 시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등에서는 어린잎채소의 친환경 안전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왔으며, 현재도 수요에 부응한 유망품목 개발, 수확 후 품질관리 등 다양한 면으로 실용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8월호)